2022 년 3 월 27 일 "그리스도의 길(3) 광야에서" (막 1:1-13)

오늘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서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길을 가신 의미를 보겠습니다.

[1] 광야의 성경적 배경

아담/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에덴을 떠나 살게 된 삶의 현장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여 힘을 들여야만 살수 있는 곳입니다(창 3:17-18). 이 후로 인류는 누구나 광야와 같은 척박함에 직면합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은 400 년이 넘게 살면서 수가 번성했지만 모진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홍해를 건너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고, 혹독한 기후와 위험 요소들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힘센 주변 나라들에 의해 몰살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본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1 세대는최종목표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이유를 성경은 한 마디로 말해줍니다.

히 3:19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

히 4:7 '그(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로 보아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척박한 광야의 삶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어려운 속에서,

- * 종의 신분을 벗겨 자유자로서 세우시고,
- *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며,
- * 공급과 보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 *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런 태도속에 머물 때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 1 세대 실패의 모습은 구약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2] 예수님의 회복

1절. '하나님의 아들 JX 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침례(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비대로서 광야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광야(요단강)로 나와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다.

9절.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보내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 장면은 에덴에서 동물들과 지낸 아담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에덴에서 늘 주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마가는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광야가 반전되어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광야는 외적으로는 척박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의 장소임을 말해줍니다. 출애굽 1 세의 잘못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제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출애굽 광야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출범하신 길은 광야였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에덴으로의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우리 삶에서도 에덴이 회복됩니다.

광야에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따름으로 에덴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 1. 성경은 실락원 이후 인간의 삶을 광야의 척박함에 비추어 줍니다. 나의 삶에서는 어떤 광야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2.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출범하신 길은 광야에서 열렸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과정과 모습으로 그 길을 맞았고 극복하셨는지 살피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